

8개 시·군에 문화·산업벨트 조성... '상생의 場' 밑그림



정부가 섬진강 일대에 동서통합지대를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섬진강이 영호남의 경계에서 화합의 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동서 화합의 상징인 구례~하동을 잇는 남도대교의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뒀 올리는 江 동서통합지대 화합의 江 섬진강

2 동서통합지대 조성 무엇을 담았나

호남과 영남을 관통하는 섬진강 일대에 동서통합지대를 조성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의 동서통합지대 조성 방침에 따라 섬진강이 '영호남을 가르는 경계'에서 지역간 화합의 상징으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여수와 광양을 해양관광지대로 육성하는 등 섬진강을 기준으로 호남과 영남 일대 지역에 신성장 산업벨트를 조성하는 동서통합지대의 기본 구상을 확정했다. 영호남 15개 시군에 걸쳐 광양 앞바다로 흘러드는 섬진강이 영호남의 벽을 허물고, 상생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섬진강 일대 발전의 토대 마련=정부가 발표한 동서통합지대 기본 구상은 향후 섬진강 일대의 개발과 문화 교류 등의 밑그림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정부는 동서통합지대 기본 구상에 따라 관광만권에 미래형 소재산업 거점을 육성하고, 고흥의 항공우주산업이 지원된다. '동서 화합'이라는 화두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섬진강 일대의 숙원사업들이 정부 주도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우선 광양·여수·순천시·구례군·순천시와 경남 하동군·남해군·진주시·사천시 등 8개 시·군을 사업 대상으로 설정했다. 또 항공우주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인 사천시의 공동 지원을 위해 고흥군을 추가 포함해 우주 관련 사업을 지원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동서 연계형 문화·관광지대 조성 ▲글로벌 신성장 산업벨트 구축 ▲교통 인프라 확충 ▲소통과 화합의 동서 간 교류협력 활성화 ▲동서통합지대의 맞춤형 추진체계 강화 등 5개 분야 43개 사업이 추진된다.

호남과 영남을 잇는 SOC도 확충된다. 여수~남해를 잇는 한려대교 건설과 광주 송정~순천 전철화 사업,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 구 남해고속도로 섬진강교 보수·재개통 등 교통 인프라도 늘린다. 전남의 철강 산업, 황만 물류와 경남의 해양플랜트 산업의 경쟁력을 융합해 해양플랜트 클러스터를 만들고, 진주·사천·고흥의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또 관광만권에 미래형 소재산업 거점도 육성해 대일본 무역 적자 해소, 산업 고도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문화·관광 활성화도=이 기본 구상에는 여수 엑스포항에 크루즈 접안시설을 보강하고 마리나항을 조성하고, 민자를 유치해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한려수도길, 이순신해전길 등 해상관광 루트를 개발하고 남해 재일동포 귀향마을, 순천 생태관광공원 조성 등 내·외국인을 겨냥한 체류형 관광지도 만들기로 했다.

섬진강 인근 지역에서 오랜 시간 이어온 문화와 전통을 토대로

2020년까지 8660억원 투입 SOC 확충, 문화·관광지대 등 5개 분야 43개 사업 추진 지자체 참여 전담 기구 필요

영호남의 마음 속 앙금을 풀어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문화는 지역주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섬진강 일대에서 양 지역민들이 만나 흥겨운 문화와 축제를 즐기면서 마음 속 벽을 허물자는 것이다.

섬진강 꽃마중길 조성, 동서 케이블카 설치, 뱃길 복원 등 섬진강의 수려한 자연을 활용한 관광자원이 개발되는 것도 양 지역의 문화를 더욱 수월하게 교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다.

섬진강 양안에 지리산과 남도의 전통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화합지대'가 조성돼 지역의 문화관광 거점 노릇을 하게 된다.

◇구체적 추진 계획 나와야=기본 구상에 담긴 청사진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세부 추진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 또 해당 지역 지자체들이 더욱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의체 구성도 필요하다.

정부는 동서통합지대 조성 사업에 2020년까지 약 8660억원(추정치)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기본 구상에는 총 예산 8660억원 중 2750억원의 지방비 부담이 있고, 2000억원도 민자로 유치해야 하는 점 등 구체적 예산 마련 방안이 빠져있다.

또 한려대교 건설에만 1조4000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

정부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소관 부처와 협의해 사업별 우선 순위를 정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의체와 모니터링 시스템도 만든다.

이처럼 기본 구상에 담긴 사업과 프로젝트 대부분이 담당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통합할 수 있는 부서나 기구를 만드는 작업이 시급하다. 국토부, 문광부, 기재부, 환경부 등 업무가 각기 나뉘져 있기 때문에 세부 계획을 짜고 예산을 지원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참여하는 전담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맞춤 웨딩의 명소 신양파크호텔

2014년 신년 감사 웨딩 할인 축제
기간 | 2014년 2월~3월(2개월)

감사할인 특별메뉴 (200명 이상)
뷔페 ₩30,000원~
스테이크 ₩35,000원~ (세금별도)

기타혜택: 객실 2실 무료제공, 꽃길 무료제공, 폐백실 무료제공, 열음조각 무료제공, 음주류 50% 할인, 웨딩캐드 50% 할인

Shin Yang Park Hotel 예약문의 062)221-4101~3